

교회 소식

유아, 유치부 (Discoveryland)

1. 자녀에게 꼭 이름표를 부착해 주십시오.

초등부 (Promiseland)

1. 어린이 중보기도 오전 9시 30분~9시 50분, 221호(5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참석)
2. 'Walking With Jesus' 기록장 초등부 데스크에 기록일지(매주)가 있습니다.

중·고등부(Timothy)

1. 7월 일정

- 4일(금): 모임 없습니다.
 11일(금): Summer Friday Night - 오후 7시, 교회
 18일(금): Summer Friday Night - 오후 7시, 교회
 25일(금): Summer Friday Night - 오후 7시, 교회

장년부

1. **새벽예배** 매주 화, 목(오전 5시 30분), 토요일(오전 6시)에 영상중계 됩니다.
 모든 Smartphone (iPhone, Android Phone 등)과 모든 태블릿 (iPad, Galaxy Tab 등)에서 함께 새벽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 **점심판매** 점심판매를 원하는 오이코스, 부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정: 7월 13일 / 8월 3, 10, 31일 문의: 김정분 권사(301-444-3100 EXT.300)
3. **갓길 주차** Waring Station Rd. 교회 바로 앞의 갓길에 주차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일정

1. Ecuador 6월 28일(토) ~ 7월 5일(토)
2. Navajo 6월 28일(토) ~ 7월 5일(토)
3. Work camp: Manassas, VA 6월 29일(일) ~ 7월 4일(금)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MD 오이코스 현황

오이코스	목자	6월	모임
1111	김상수	V	V
1112	장세권		V
1113	강현모	V	V
1114	오영선	V	
1115	신상욱		V
1116	손승환	V	
1121	채재진	V	V
1122	김연석	V	V
1123	이준철		V
1124	김정분	V	V
1125	최예스터	V	
1126	정두봉		V

오이코스	목자	6월	모임
1131	곽지현	V	
1132	신덕준	V	
1133	나희주	V	
1134	홍재현	V	
1135	정성혜	V	
1136	이안나		V
1141	차주건	V	
1142	정명철	V	
1143	이재훈	V	
1144	김재흠		V
1145	윤일상	V	
1146	나은숙	V	

오이코스	목자	6월	모임
1211	김종수		V
1212	김인찬	V	V
1213	강동균		
1214	유진형	V	
1221	권기환	V	V
1222	황유상	V	
1223	홍순기	V	V
1224	김경자	V	
1226	왕정식		
1231	옥유선	V	
1232	송희정		
1233	김여경	V	V
1234	장새미	V	V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웹로쉽교회 / 메릴랜드 캠퍼스
June 29, 2014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에베소서 5:1-10

이원상 목사

주일 예배

장년부	1부(한어) 오전 8:00 / 2부(한어) 오전 10:00 / 3부(영어) 오후 12:00
중등부 예배	오전 10:00 ~ 10:45 성경 공부 오전 11:10
고등부 소그룹	오전 10:00 전체 모임 오전 11:10
유치부 예배	오전 10:20 & 오후 12:20 유치부 주일학교 오전 9:00 ~ 오후 1:45
초등부 예배	오후 11:10 ~ 12:00 초등부 주일학교 오전 10:00 ~ 오후 1:45
한어 청년부 예배	오후 2:00

주중 예배 / 모임

한어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일 오전 7:15
영어 새벽 예배	토 오전 7:00 영어 제자훈련 일 오전 10:00
수요 기도회	수 오후 7:30 한어 제자훈련 일 오후 12:00
중고등부 모임	금 오후 7:00 여성 사역(아엘) 방학 목 오전 10:00
한국학교	토 오전 9:30 시니어 센터 방학 수, 금 오전 10:00

섬기는 사람들

교역자	곽호식 김우성 김진광 박진용 양경옥 양수연 조진숙 Grace Kim Keeyoung Kim Neil Kim Mark Kosko Brian Lee Sara Pyon David Son
사무장	김기영 김일봉 정봉열 한기선 Alex Guo Michael Park Michael Kang Frank Pyon
사역장	김덕규 김덕원 장형열 정평희 지용한
파송 선교사	구모세/은혜 박금순 이다윗/안나 이사라/오달론 오아브라함/순옥 이석문/현숙 장요셉/헬렌 정시나 조규철/옥분 Alex/Pam Im Brian/Jennifer Chang Chong Ho/Kris Won Daniel/Ruth Kim David/Lia Chang James/Denese Forkkio Sung Il/Heidi Jung

MD 캠퍼스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444-3100 Fax. 301-444-3115



VA 캠퍼스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444-5634 Fax. 703-444-0567

www.fellowshipusa.com



친구

지난 주간에는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선교보고를 위해 방문하고 머물렀던 선교사님(아프리카 탄자니아)이 선교지로 돌아가시자마자, 린치버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속한 한국 침례교의 미주총회가 Dulles Hilton Hotel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었기에 또 교회 근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게 된 행사에 나가 보지도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오후 시간 잠깐 틈을 내서 회의장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에 한국의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겼었는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목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전쟁 중이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역을 했었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강권 하심과 전에 선교지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강한 권면으로 지금은 텍사스에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노라 했습니다. 약 20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도 소식도 없이 잊고 살았지만 한 두 시간 얘기하다 보니 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쁨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던지 그 목사님과 함께 총회에 참석했던 같은 주에 계신 목사님이 동석했고 함께 얘기하다 보니 모두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모두 함께 친구 하자는 말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만에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ㅎㅎ

총회가 끝나고 그분들은 모두 섬기는 지역과 교회로 돌아갔고, 또 방문했던 목사님 가족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를 손님 대접으로 바쁘게 보내면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언제 만나도 즐겁습니다. 편한 존재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함께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친구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 사이의 의리가 목숨을 걸 만큼 진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의 유무를 떠나 외롭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 받는 사람이 많음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찾아보면 늘 가까이 있지만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시도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지금도 내 곁에 항상 함께 하는 친구...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그분이 나를 짝사랑 하듯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웠던 내 영혼에 빛을 주시고, 마음 깊이 숨겨졌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 왕이요, 구세주요, 위로자인 가장 귀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먼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친구 삼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 주신다 하십니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것을 서로 알고 함께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창18:17, 사41:8, 약2:23)이 되어 그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되어 소돔을 위해 중보 하기도 했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친구가 되기를 자청하시니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친구 하자고...

**요 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설교 메모

주일 봉사자

프레이어 파트너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15	커버넌트 채플
주일 봉사자	점심 담당	오늘: Work Camp		7/6: 장로회	
	커피/청소	오늘: 유진형(1214), 권기환(1221)		7/6: 황유상(1222), 홍순기(1223)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노방전도		일시: 7월 6일(일), 오후 12:30 / 이준철(1123), 김정분(1124)			